

# “산소치료 환자 위중 상태 아냐”... ‘코로나’ 퇴원자 추가예정

### “산소치료 환자, 폐렴 기저질환 16번 환자·고령 25번 환자 아냐”

### “위중한 환자는 없어...나머지 상태 안정적, 1~2명 퇴원 준비”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중 1명이 현재 산소치료를 받고 있으며,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국내 감염자 28명 중 7명이 퇴원했다. 남은 환자들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일부 환자가 추가 퇴원을 앞두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13일 브리핑에서 “비교적 중증이라고(중증 환자라

고 본다면 환자 중 1명이 아직 산소공급 치료를 받고 있다”며 “계속 폐렴 상태여서 치료를 진행 중이고 경과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어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정도의 위중한 환자는 없다”며 “나머지 환자들은 안정적 인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는 당초

우려됐던 기존 폐렴 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16번 환자(42·여)와 고령자인 25번 환자(73·여)는 아니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과진 중대본 역학조사·환자관리팀장은 “16번 환자는 입원 당시 폐렴이 있었지만 현재 많이 회복한 상태”라며 “기저질환이 질병 경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오늘 퇴원자

는 없지만 현재 퇴원을 고려하고 있는 환자들이 1~2명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국내 코로나19 퇴원자는 총 7명이다. 8번 환자(62·여)가 지난 12일 익산 원광대병원에서 퇴원했고, 한양대학교 명지병원에 격리치료를 받은 3번 환자(54·남), 17번 환자(38·남)도 같은 날 퇴원했다.

앞서 11번 환자(25·남)와 2번 환자(55·남), 1번 환자(35·여·중국인), 4번 환자(55·남)도 퇴원했다.

한편 이날 국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없어, 총 감염자 수는 28명을 유지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13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제 3차 전세기로 입국한 우한 교민 147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28명이며 음성은 5099명, 검사 진행 중은 670명이다.

## ‘코로나19’ 광주 격리 60명 해제 20일 0시

### 기간 하루 더 연장키로

광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환자 16번·18번 모녀와 같은 병원에 머물러 격리된 광주21세기병원과 소방학교 생활관의 격리 해제 시점이 하루 연장됐다.

광주시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 20일 0시에 격리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16번 환자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4일부터 잠복기 14일을 계산해 17일까지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 18일 0시에 격리를 해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6번 환자의 딸이 다음 날 ‘18번 확진자’가 되면서 접촉

자 격리조치 해제는 하루 늦춰진 19일 0시로 조정됐다.

시는 18번 환자와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을 계산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격리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21세기병원에는 환자 20명과 보호자 4명 등 24명, 소방학교 생활관은 환자 31명과 보호자 5명 등 36명이 격리돼 있다.

21세기병원은 국방부 소속 의사 2명과 간호사 10명, 소방학교 생활관은 보훈병원과 조선대병원 의사 3명, 보훈병원과 우암의료재단 간호사 11명이 관리하고 있다.

이날 현재 광주지역 확진환자는 16번·18번 환자 등 2명에 접촉자는 458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16명의 격리가 해제됐다.

뉴스1

## 전남경찰, 총선 불법행위 11건 적발

전남지방경찰청은 21대 총선과 관련해 불법행위 11건을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 11건에 14명을 단속해 이중 범죄혐의가 인정된 2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9명에 대해서는 내사나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거짓말 선거 3명 △금품선거 4명 △사전 선거운동 1명 △공무원 선거개입

2명 △인쇄물배부 2명 △기타 2명이다.

전남경찰청은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이날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단속 체제를 운영한다.

특히 금품선거나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법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 ‘돌봄공간’ 격리 순천대 中유학생 “학교 도착에 안도”

### “공항에서 학교까지 모두 친절...불편함 없어”

### “걱정 많았는데 학교 제공 격리시설에도 만족”



“코로나19(신종코로나)가 퍼져가는 상황에서 학교에 도착하는 순간 안도했습니다. 중국 유학생 때문에 고생하는 순천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중국 유학생인 A씨(31·여)는 9일 한국에 들어온 이후 신종 코로나 관련 증상은 없지만 전남 순천대가 제공한 돌봄 공간에서 현재 5일째 생활 중이다.

5년 전 한국에 들어와 순천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는 올해 학업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한다.

그는 산과 강, 바다가 있는 순천의 환경에 만족하고 있고 음식도 가리는 것 없이 아무것이나 잘 먹는 ‘적응된’ 학생이다. 물론 한국말도 잘 한다.

중국 산동성의 작은 도시에서

온 A씨는 “고향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도 적은 편이고, 중국에서도 안전한 곳이었다”며 “중국에서는 대부분 집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접촉을 안하고 있었다”고 중국생활을 전했다.

하지만 A씨는 “떠나 먼 한국으로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버스타고 다시 순천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기에 부모님께서 걱정 많이 하셨다”며 “실제로 9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방역과 검역 등이 복잡해 긴장을 많이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힘들게 인천공항을 나와 버스를 타고 학교가 있는 순천에 도착했을 때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A씨는 “학교에 왔을 때는 정말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며 “학교에서 제공한 돌봄 공간에 대한 설명도 들었고, 밖으로 나갈 수

없던 점을 제외하면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돌봄 공간에서 자신을 격정하는 고향의 부모님과 매일 매일 전화를 한다”며 “저는 아픈 곳 없이 잘 생활하고 있으니 부모님도 마스크 잘 쓰라는 얘기를 한다”고 웃었다.

한국 친구들이 자신을 많이 걱정해 준다는 얘기도 했다.

A씨는 “한국은 서로를 잘 모를 때는 서먹하지만 친해지면 정말 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며 “여러명의 한국 친구들이 안부를 물어오며 걱정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자랑했다.

A씨의 하루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 씻고 식사하고 책보며 공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피곤하면 쉬기도 하면서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학교 측에서 마련해 준 공간은 편의시설이 모두 구비돼 있고 음식도 제공되기 때문에 앞으로 2주 동안도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 편안한 마음이다.

입국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 꺼려하거나 불편해 하는 시선은 없었다는 질문에 “공항에서부터 모두가 친절하게 도와 주셨고, 불편해 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다”며 “학교에 도착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꼭 드릴 말씀이 있다”며 “이번에 중국 유학생들 때

문에 순천대학교의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대학교는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설 연휴가 끝난 지난달 28일부터 매일 상황을 체크하고 대비책을 강구했으며 관련 예산도 미리 확보했다.

이후 이달 6일에는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을 3월 16일로 결정했으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졸업식, 입학식 등 다수가 모이는 공식 행사와 학생 집단연수, 과단위 행사 등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다.

또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울였다.

2월 중 입국 예정인 중국 유학생 19명은 입국 즉시 한국의 신종 코로나 대응상황을 개별별로 자세히 설명해 이해를 구하고 별도의 돌봄 공간에서 2주간 따로 생활하도록 관리한 후 일상에 복귀하도록 했다.

학교 측은 이들이 거주하는 돌봄 공간의 복도 등은 매일, 각 개인 거주공간은 3일에 한번씩 소독하고 하루 3끼 식사와 간식, 인터넷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대학 관계자는 “순천대는 지역 사회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중국인 유학생과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여건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지역민들과 대학 구성원 모두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되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